**[삼성전자]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IM 소프트웨어직군**

**자기소개서(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설명하십시오. 자기소개서는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되 다음**

**항목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동기, 희망직무와 이를 준비해온 과정, 자신의 약점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글자수 3,000자 이내 입력**

[ 조금 불편했지만 자율적인 성장 환경 ]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 밑에서 외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저 혼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린나이에 부모의 그늘 밑에서 지내지 못한 탓에 일찍 철이 들고 무엇이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저의 교육에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선뜻 학원에 보내 주셨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한 것은 저의 선택이기에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학원 다니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아버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자율적인 환경에서 어린나이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배우게 되었고 덕분에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과 나의 자유로운 생활에 따른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성장합니다.

[ 제 2의 빌게이츠를 꿈꾸는 소년 ]

1998년 말 한창 PC방 열풍이 불고 있을 때, 혼자 노는 것이 지겨워졌는지 아버지를 졸라 게임을 하기 위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됩니다. 어느 날 집에 컴퓨터를 설치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으로 한걸음에 달려가 설레는 손으로 컴퓨터에 전원을 넣었는데, 부팅할 때 구름 배경사진과 윈도우 98 마크가 있었던 탓인지는 몰라도 하늘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열을 느낍니다. 아주 어린 시절 기억이 드문드문 한 3~4세 때 쯤, 외갓집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때는 MS-DOS를 사용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바탕화면의 아이콘 하나하나가 신기했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나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당시 빌게이츠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저는 그저 윈도우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 약점을 극복하고 발전의 발판으로 삼다. ]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점은 어린 저에게 자격지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주변의 불쌍한 시선은 절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주변의 시선에 자격지심이 들 때마다 빨리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부모의 그늘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봐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걸 남들이 모르게 더 반듯이 행동하고 남들 보다 더욱 노력했습니다. 바라던 고등학교 졸업 후, 어른이 됐다는 생각에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당당히 벗어날 때라는 생각에 자격지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쾌활해지고 붙임성도 좋아지며 자신감도 점점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약점, 어머니가 없이 자랐다는 것을 이젠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생겼습니다. 나의 약점을 친구와 동료에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과 용기는 현재 학교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팀을 이뤄 일을 할 때, 팀의 구성원에게 적절한 역할을 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약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힘으로써 관리자가 저의 약점은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저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 꿈은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회를 기다리다. ]

컴퓨터관련 학부로 대학교 입학을 하고 제2의 빌게이츠라는 야망이 망언이 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학점을 받기 힘든 전공과목도 선뜻 들으며 닥치는 대로 전공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합니다. 천성자체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깊게 사고하는 것을 즐기기에 즐기면서 전공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남들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남들만큼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 결코 자만하지 않으며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자만심을 경계했습니다.

배웠던 내용에서 더 알고 싶은 것을 기록해둬서 도서관을 수시로 다니며 관련된 책을 찾을 찾아보고, 교내 학술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후배들에게 스스로 학습한 것을 가르쳐주면서 배웠던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에 부전공으로 전자공학을 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올해 중순부터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연구실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합니다.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연구실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접하게 되며 더 많은 관점과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도 익히게 됩니다.

[ 삼성에서 꿈과 기회를 발견하다. ]

2009년 말, 군복무 중에 뉴스를 통해 삼성의 바다os 출시 소식을 접합니다. 제2의 빌게이츠가 꿈이라고 속으로 다짐을 했지만, 이미 os 시장은 윈도우, 맥os와 리눅스가 점령해서 새로운 os를 만드는 건 힘들다고 생각되어 전역 후 무엇을 개발하는 개발자를 목표로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의 바다 os 개발 소식을 듣고서 막연했던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 2의 빌게이츠를 목표로 새로운 플랫폼 개발이 꿈이었던 저에게 삼성의 바다 플랫폼 개발 소식은 삼성과 저의 목표가 같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새로운 도전은 삼성이 얼마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하고 힘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야말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대이며 삼성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삼성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SST를 통해 인재 발굴에 힘쓰는 삼성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삼성과 함께하는 그리고 삼성이 원하는 인재가 되어 명예로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초일류 소프트웨어회사로 성장의 주역 ]

아직 국내에는 A기업이나 B기업 같은 초일류 소프트웨어 회사가 없습니다. IT강국의 이름에 걸맞게 국내에서도 초일류 소프트웨어 회사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성공의 주역의 중심에 제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품어왔던 제2의 빌게이츠라는 꿈을 삼성에서, 삼성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꿈꿉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세계에 삼성의 소프트웨어 저력을 보이고자 하는데 그 중심에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